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5일 목요일 음 11월 5일 (12월)

목요일론

기상정보

구름많고 한때 비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한때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9℃, 낮 최고기온은 13~14℃로 예상된다. 오후의 비를 대비해 우산을 챙겨야겠다.

Table with 3 columns: Time (오전, 오후), Location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and Precipitation Probability (20%, 60%, 60%, 60%).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달몰림) and Location (제주, 서귀포).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9/13℃, 모레 흐리고 비 7/10℃

월드뉴스

인도-중국 국경분쟁지 철군... 경제협력 시사

직항편·비자 우선 처리될 듯

인도가 4년 전 중국과 무력충돌을 빚은 국경분쟁지에서 최근 양측 철군이 완료됨에 따라 중국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약수하는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연합뉴스

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km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정상 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고 라다크 철군이 시작됐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기후변화와 우리



오수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지구했던 더위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가을이 앞을 사이도 없이 추위가 혹 들어왔다. 수년째 엘니노와 라니냐의 반복적 등장은 기후위기를 실감케 한다.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도 영상 30도를 넘나들던 추석 전, 냉방기 온도설정과 가동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가 인간의 산업활동, 대량 소비 등이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불편함이 우선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되던 기후가 지난 100여 년 사이 평균을 벗어나는 변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인간에게 위기가 됐다.

기후온난화를 경고한 언론기사는 이미 1912년에 있었다. 2021년은 23만9193건의 언론보도가 났다는 중앙지의 기사도 읽힌다. 100여 년 전에는 예언적 성격으로 기사화됐다면, 지금은 기후위기에서 오는 일상적 현상으로 다가온다.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후 기록이 보인다. 캐나다나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을 신라인들이 봤다. 12월에 북승야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는 기록, 가을에 동쪽 바닷물이 붉게 되고 또 더워져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는 기록,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는다는 내용 등 다양하다. 과거에는 전

쟁과 농사가 중요했던 시절이라 기상이상에 대한 기록들이 정치사적, 시대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주에도 조선 건국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상기후에 대한 기록은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김상헌의 '남사록'에서 제주의 이상기후를 볼 수 있다. 이 책은 김상헌이 1601년(선조 34)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했을 때를 기록한 일종의 제주기행문이다. 김상헌은 바람에 대해 유난히 많이 기록했다. 그는 제주 도착 후부터 연일 강한 바람 때문에 객사에 머무는 날이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날씨로 우도 순시도 포기했다. 10월임에도 동북풍이 크게 불어 집이 들쭉거리고, 파도는 성(城)을 뒤흔들며 밤새도록 편안히 잘 수 없었다고 했다. 이미 10월

에 첫눈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니냐현상을 보는듯하다. 당시 이런 이상기온은 바로 질병과 흉년으로 이어졌다. 과학적 현상도 모른 채 천기(天機)에 의존하는 일이 다반사다.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브리프에서 제주인 경우 환경보호비용부담금을 지불하는데 찬성의견이 전국평균 대비 3번째로 높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노력은 전국평균보다 낮다고 보고됐다. 이것은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실천 노력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지금은 누구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어떤 환경보호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참여와 적극적 환경행동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열린마당

제주 체육사에 빛나는 발자취, 김치부 선생



김혜인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

1984년, 제주도는 한국 체육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역사를 썼다. 체육 불모지인 제주에서 전국소년체전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는 제주 체육의 기반을 다지고, 체육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전국대회 유치 소식은 제주 전역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했는데 당시 제주도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제일동포 연정 김치부 선생의 선행은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김치부 선생은 정구장 건립을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성금 2억원을 쾌척했다.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해 김치부 선생을 비롯한 도민과 기업의 숭선 참여가 더해진 결과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71억8000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니 제주 사람들의 수놓음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제주도가 체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에 지금까지 3번의 전국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김치부 선생 동상 앞에서 그분의 애항심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심시일반으로 참여하였던 도민들의 열정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더불어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제주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되기를 소망해 본다.

원전의 사회적 수용에서 보험의 역할



좌효주 손해사정사·행정사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탈원전 논쟁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한 축을 놓치고 있다. 바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제도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은 기술적 안전성만이 아닌 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일반적 불법행위책임 법리와는 차별화된 특수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과실책임'을 근간으로 해, 원전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 또한 '책임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원전사업자가 우선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정교한 법적 설계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무보험제도다. 원전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금 청구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된다. 원자력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의 경우 방사능 피해의 만발성을 고려해 30년이라는 긴 소멸시효를 줬다. 다만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해, 사고당 9억 계산단위(SDR)라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물론 원전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와의 약속이다. 다만 충분한 배상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dvertisement for Grand Hearing (그랜드보청기) featuring a doctor and hearing aid products.

Advertisement for Gukje Borching Plaza (국제보청기프라자) offering hearing aid services and insurance.

Advertisement for Gamgul Myomok (감굴묘목) featuring various types of mushrooms.

Advertisement for Gamgul Shinpumjong Bonyang (감굴신품종분양) featuring 2025 mushroom variety introductions.